

우주철도 999... 고흥, 관광객 1천만 시대 궤도 올린다

열차표는 반값... 지갑엔 10만 원... 고흥으로 돈 버는 여행 떠나볼까!

우주를 향한 꿈이 현실이 되는 곳,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오는 2월 코레일과 손잡고 우주급 혜택을 담은 철도 여행상품 '우주철도 999'를 전격 출시하며, '관광객 1천만 시대'를 향한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전국 최고 수준의 환급'이다. 코레일의 지역사랑 철도 여행과 연계된 이 상품은 고흥을 찾는 철도 이용객이 지정된 관광지 6개소 중 한 곳만 방문해 QR 인증을 마쳐도 철도 운임 50%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하지만 고흥의 진짜 유혹은 그다음부터다. 군은 여행객이 지역에 깊숙이 머물며 고흥의 속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류

형 관광'에 화력을 집중했다. 고흥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관내 식당을 이용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여행객에게는 1인당 1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규모의 모바일 고흥사랑상품권이 돌아온다.

환급 절차 또한 스마트하다. 여행 전 '지역상품권 chak' 앱을 설치하고, 여행 후 고흥관광 홈페이지에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확인을 거쳐 상품권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의 편의성을 높이려는 군의 세련된 행정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군 관광정책실 관계자는 "우주철도 999 여행상품은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의 이미지를 브랜드화하여 철도 여행객의 방문



을 이끌고,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기차 여행이 주는 특유의 낭만과 함께 고흥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강진 초록민음 쇼핑몰, 입점업체 온라인 매출 성장 지속 입점업체 역량강화 교육·2026년 사업설명회 추진

강진군이 지난 22일 강진군 웰니스 푸소센터에서 '초록민음강진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쇼핑몰 입점업체 관계자 150명이 참석해 고객 CS 교육과 2026년도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함께 추진했다.

'고객과의 신뢰를 만드는 첫걸음은 친절에서 시작된다'는 취지 아래, 입점업체들의 응대 능력과 후기관리 역량을 높이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시했다.

특히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는 고객 불만사항 대응 전략, 긍정 리뷰 유도법, 카페24 주문·배송 시스템 활용법까지 다뤄 현장 실무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6년에는 쇼핑몰 택배비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e커머스 온라인 교육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 초록민음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초록민음강진 쇼핑몰의 온라인 매출은 반값여행 전후로 34배의 매출이 증가했으며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회원 수와 입점 품목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 대표 온라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강진군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입점업체 간 소통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소비자 만족과 재구매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온라인 유통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초록민음강진 온라인 쇼핑몰 입점 문의는 강진군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 플랫폼육성팀(061-430-5953)으로 하면 된다. 강진/손경실 기자

전남 함평군은 "지난 22일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공부방에서 '함평군 농산물 주력상품 개발 및 육성 업무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주력 농산물 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기능성 농산물의 상품화와 고부가가치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군 농업정책실장·산림공원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 등 관계 부서 담당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함암쌀·당노

함평군, 농산물 주력 상품 개발·육성 본격화 함암쌀 등 기능성 작물 중심... 고부가가치 품목 발굴 논의

포도·두릅·참송이버섯 등 함평군의 주요 기능성 농산물을 중심으로 품목별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군은 지역 대표 농특산물의 체계적인 발굴과 육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특히 두릅·참송이버섯의 지역 특산물

화와 함암쌀·당노쌀 등 기능성 농산물의 성장 가능성을 검토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한 핵심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주요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함평군은 함암쌀을 608농가 112ha 규모, 당노포도를 10농가 9.8ha 규모로 생산

하고 있으며, 참송이버섯은 시설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두릅은 76농가가 노지재배하고 있다.

노병철 농업정책실장은 "관련 부서와 생산·유통·가공 주체 간 협업을 강화하고 단계별 추진계획을 점검해 실효성 있는 주력상품을 육성하겠다"며 "함평군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무안군, 9개 읍면 순회 군민과의 대화 성료

무안군(군수 김산)은 1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관내 9개 읍·면을 순회하며 추진한 '군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군민과의 대화는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건의사항과 생활 불편 민원을 직접 청취해 향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산 군수는 각 읍·면을 찾아 ▲RE100 기반 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 ▲K-푸드 융복합산업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충 ▲농산업 AX 혁신 콤플렉스 조성 등 중장기 군정 방향과 주요 정책 과제를 설명하고, 군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산 군수는 "제안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군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



장흥군, '탄탄한 복지제도 마련'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장흥군은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자활지원 계획, 가족관계해체 인정 등 제도 운영 전반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현장의 여건과 제도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제도의 방향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법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실제 부양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해체 여부를 신중히 심의해, 소외된 가구의 현실을 반영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뒀다.

/장흥군 제공



영광군승마장, 합리적 가격의 쿠폰제 회원 운영

영광군은 지역 주민과 승마 체험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영광승마장 쿠폰제 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폰제 회원은 일정 횟수의 기승권을 묶음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일반 1일 기승에 비해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승마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정기적인 승마 체험을 원하는 성인과 어린이·청소년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쿠폰제 회원 제도는 승마를 지속적으로 체험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승마 이용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승마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